



최근의 유가급락이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 업종별로 상이하나 GDP 0.1% 상승 등 전체적으로 긍정적 효과 -


일본의 경우 중동산 원유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아 두바이원유 가격에 대한 영향이 크다. 두바이원유 가격은 2014년 여름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2015년 8월부터는 50달러를 밑돌고 있다. 최근에는 30달러 후반 대에서도 거래되고 있다. 최근의 유가하락이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중동산 의존도가 높은 일본으로서는 두바이유 가격 하락으로 경제성장 혜택

첫째, 두바이원유 가격이 50달러 수준에서 움직이면 일본의 소비자물가를 0.7%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 보통 휘발유 1리터 소매가격은 2014년 7월 170엔에서, 2015년 8월에는 140엔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 연료비 하락으로 인해 운수업의 요금, 해외패키지 여행 요금, 전기료(전년 대비 1.5% 하락) 등도 인하될 것이다. 에너지 및 신선제품을 제외한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0.7% 증가하고 있으므로, 유가하락으로 인해 금년 7~9월의 소비자물가는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둘째, 두바이원유가 50달러 선에서 추이하는 경우 일본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약 4조 5,000억 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원유수입액이 14조엔, 광물성연료 전체 수입액이 약 30조엔에 달해 이는 일본 수입총액의 30%에 해당한다.

셋째, 업종별로 원유가 하락의 명암이 엇갈린다. 화학업계, 페인트업계, 전력회사, 운수업(특히 항공, 해운), 타이어, 건설업 등의 다수 업종은 이득을 본다. 한편, 석유도매업은 유가하락에 따른 재고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종합상사는 보유하는 원유권익의 손실을 초래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플랜트업체나 유전발굴 관련 회사인 일본해양발굴(사)이나 강관제조업체인 新日鐵住金(사)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최근의 유가급락이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로 상이하나 GDP 0.1%를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 약세의 일본 GDP 상승효과는 그다지 크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볼 때 일본경제의 디플레 탈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하락은 교역조건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기업 수익의 회복에 의해 노동분배율을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물가를 하락시켜 실질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유가 약세는 일본경제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유가하락이 원유 수출비중이 큰 신흥국 경제를 교란시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 「エコノミスト」, 2015. 9. 8

사공 목 | 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skmok@kiet.re.kr



미얀마 최저임금 시행

미얀마는 지난 9월 1일부터 최초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다. 2013년 7월 최저임금법 발효 이후, 기업과 노동자들의 심한 의견차이와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 설정작업은 지지부진했다. 미얀마는 다가오는 11월 총선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수의 내부회의와 정부·고용주·노동자의 3자간 회의, 미얀마 108곳의 2만 2,032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난 8월 말, 2년 만에 최저임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제에 따르면, 고용주는 하루 8시간 근무기준 3,600미얀마 차트, 약 2.8달러 이상을 지급하게 되었다. 최저임금은 지역과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단 15명 미만의 소사업장은 제외된다. 발표된 최저임금은 기존 평균 임금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미얀마의 주요 산업인 노동집약적 제조업, 특히 봉제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봉제업의 경우, 하루 평균 임금이 1,300~1,600차트였으며 정부와 협상 시 제안한 최저임금안은 2,500차트이다. 코트라 양곤무역관에 따르면,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해 기존 임금 대비 기본급의 경우 44%, 2시간 초과근무 시 70%, 4시간 초과근무 시 85%나 높은 임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최근 미얀마의 빠른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 임금 상승은 당연한 수순이다. 정권이 바뀐 이후, 임금 상승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GAP나 H&M 같은 글로벌 패션기업들은 노동자 시위 등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을 지지한 바 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노동자 측의 요구를 보다 많이 반영하여 미얀마 산업의 주를 이루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체들에는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미얀마 노동부는 최저임금제 도입 후 일주일 만에 천여 명이 해고당했으며 한 공장은 폐쇄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근로자 해고, 노사 갈등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그러나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인 베트남(101~146달러), 캄보디아(128달러)에 비해 여전히 인건비가 저렴하고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 미얀마 정부의 섬유·의류 산업 육성·지지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섬유·의류업체들에 미얀마는 여전히 유리한 투자처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미얀마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을 주의 깊게 살피고 투자 및 산업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급변하는 미얀마의 투자·산업 환경에 발맞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료 : Myanmar Times, 양곤무역관

정선인 | 연구원·국제산업협력실 sunin.jung@kiet.re.kr



케냐,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 추진

지난 9월 16일 케냐 산업부는 산업 변화 프로그램(Industrial Transformation Programme)을 소개하면서 케냐가 아프리카의 제조업 허브로서 거듭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산업부 송가(Songa) 차관은 산업 변화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발전’이 국가 경제발전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역수지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케냐 정부는 이를 위해 가축산업, ICT특화단지, 농업단지 등의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을 소개하였다.


경제개발특별법 등 법적·제도적 정비로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최근 케냐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2012년에 발제되어 그동안 인준이 지연되었던 경제개발 특별구역법안을 최종 승인하여 제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경제개발특별법은 케냐 내 주요 거점 지역을 경제개발 특화지역으로 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산업단지들을 통해서 동아프리카 지역의 약 1억 5,000만명 소비시장을 포함한 동남부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Tripartite Free Trade Area, TFTA) 지역과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경제개발특별법의 주요 인센티브들은 10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후 10년간 15% 세금 부과, 사업 개시 후 10년간 배당이익 및 과실 송급에 대한 원천세 면제, 기계 장비 및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등록세, 부가세 면제, 법 처리 절차에 인지세 면제 등이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외국기업들에 확실한 투자 동기가 될 것으로 케냐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A)이 9월부로 10년간 추가 연장되어 케냐의 제조업 수출 정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이미 나이로비의 아티리버 수출자유공단(Athiriver EPZ)에서는 섬유 제품들이 수출 중에 있으며, 몸바사 자유무역항(Free Export Zone)이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조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키수무 지역을 농업 및 수산물 특가공 수출단지를 위한 경제특구지역 후보지로 선정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케냐 정부는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제조업 강국들로부터 다양한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현지국들을 방문하여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산업화 정책과 법안 통과로, 동아시아 최대의 물류항(몸바사)을 보유한 케냐는 동아프리카 최고의 제조업 투자 유망처로 떠오르고 있다. 

자료 : coastweek.com, kbc.co.ke, allafrika.com 등

윤정현 | 연구원·국제산업협력실 jhyoon@kiet.re.kr